

장흥군, 무면허·음주운전 판친다

울 1분기 101건 ... 도내 '교통 사망사고 1위' 불명예도

농·어촌 지역에서 무면허 및 음주운전자... 장흥군의 경우 울 1·4분기(1~3월) 무면허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건수는 각각 73건과 4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무면허 3건, 음주운전 39건에 비해 각각 24배 이상과 1.2배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고 운전을 계속하다 무면허로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같은 무면허 및 음주운전자 증가는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져 지난해 전남도내 시군 가운데 장흥군이 '교통 사망사고 1위'로 나타났다.

이밖에 음주운전의 경우 1년, 무면허는 2년으로 돼 있는 면허취득 결격기준을 강화하고 면허 취소와 함께 사회봉사명령 등 벌칙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편 장흥경찰은 교통사고 발생 1위군이라는 불명예를 벗기 위해 울 들어 무면허와 음주행위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그 결과 울들어 지난 10일 현재 교통사망사고는 5건으로 도내 21개 경찰청 가운데 2번째로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기기자 kykim@

나주 완사천 관리 소홀 ... 관광객 '눈살'

잡초 무성·벤치 훼손·샘물 오염까지

나주의 대표적 유적지인 완사천(流紗泉)의 관리가 소홀해 지역 이미지를 흐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나주시청 앞 국도 13호선 도로변에 있는 완사천 일대 주변에는 잡초가 무성하고 벤치가 사람이 앉기 힘들 정도로 훼손돼 있다.

또 체육시설은 흥물로 변했고 대형 페타이어까지 버려져 있으며, 비가 오면 오염된 빗물이 낮은 완사천 샘물로 흘러 들어간다. 더욱이 이곳이 유적지라는 사실을 소개하는 간판도 없이 방치돼 있어 유적지 관리의 사각지대로 꼽히고 있다.

그러나 나주시청 관계자들은 책임소재를 서로 떠넘기는데 급급하고 있다. 시 문화관광과 관계자는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할 일은 다 했다"며 "나머지 부분은 산림공원과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완사천은 고려 개국전 왕건과 장화왕후(莊和王后) 오씨 부인이 인연을 맺은 장소로 전라남도기념물 제 93호로 지정돼 있다. /나주=정철환기자 chungjo@

강진청자 미국인들 마음을 사로잡다

워싱턴 전시회 1만3,600여명 관람

'천년의 빛'을 간직해 강진청자가 미국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강진군은 "지난 9일부터 16일까지 8일간 워싱턴D.C. 스미소니언 자연사박물관에서 열린 '강진청자 미국순회전'에 1만3천600여명의 관람객이 방문했다"고 19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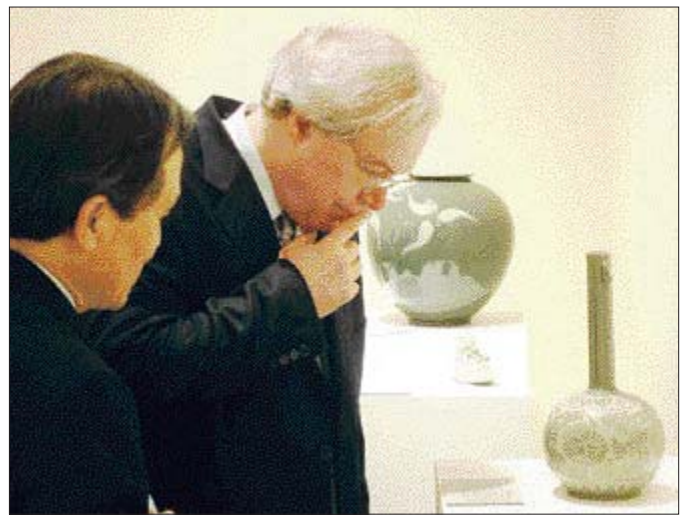
군은 이번 전시회를 기념해 폴 테일러 스미소니언 자연사박물관장의 요청에 따라 현대적 감각을 갖춘 강진청자 3점을 기증했다.

미국 순회전 첫번째 일정이었던 이번 전시회에선 '천년의 얼굴(The Millennium Face)'이란 주제로 청자 제작 시연회를 비롯해 강진 관요와 민간요에서 고려시대 청자의 제작 기법 그대료를 이용해 만든 작품 등 60여점이 진열됐다.

또 청자상감비룡형주자(국보 61호), 청자상감운학문매병(국보 68호) 등 진품 고려 청자와 똑같은 모습의 작품들을 전시해 강진청자의 우수성을 알렸다.

황주홍 강진군수는 "강진은 9세기부터 14세기까지 고려 청자를 꽃피운 고장"이라며 "강진청자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미국 전시회를 기획했는데, 예상보다 반응이 너무 좋다"고 말했다.

한편 강진청자 미국순회전은 지난 9일부터 7월 12일까지 65일간



강진청자 미국순회전의 첫 번째 일정이었던 워싱턴D.C. 스미소니언 자연사박물관 전시회에서 관람객들이 강진청자를 유심히 바라보고 있다.

워싱턴을 시작으로 뉴욕, 애틀랜타, 시카고, 세인트루이스, 로스앤젤레스 등 6개 도시에서 열린다. /강진=박진희기자 lucky@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광양시가 개최한 '광양 국악난장'에 2만여명의 관람객들이 몰려 국악 대중화의 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주관 뜨거운 열기 '제1회 대한민국 대학국악제'도 개최

'2008 광양 국악 난장'이 지난 17·18일 이틀간 뜨거운 열기 속에서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광양시가 함께 마련한 이번 행사는 기업과 지역이 어울려 국악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대중화에 크게 기여하는 화합의 한마당이 됐다. 행사 기간 동안 2만 여명의 인파가 뿔어낸 역동적인 움직임과 화합의 열기는 미려한 향연 새로운 희망의 에너지로 승화했으며, 광양시가 세계 속의 문화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

▲제1회 대한민국 대학국악제는 국내 최초로 민간 기업이 주도한 이번 대학국악제는 국내 최대규모인 5천만 원의 상금이 지원됐으며 전국 각지에서 300여 명의 대학생들이 참가, 국악에 대한 젊은 층의

뜨거운 관심과 사랑을 엿볼 수 있었다. 특히 기존 전통국악에 현대음악을 가미한 '퓨전 국악'을 테마로 국악을 사랑하는 젊은이들의 창의적인 실험 정신과 끼를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신명나는 축제의 한마당= 육군본부 군악 취타대가 18일 광양시 중삼가와 행사장인 드래곤즈 구장 주변에서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가두 행진을 펼치며 '2008 광양 국악난장'의 막이 올랐다. 오후 1시부터 전남 드래곤즈 전용구장 일원에서 진행된 부대행사에서는 남사당패의 풍물놀이와 전통춤타, 각설이 공연 등 관객들이 함께 어울려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놀이마당이 축제의 흥을 북돋았다. ▲판소리 명창 공연 '사인사색(四人四

色)= 이날 오후 2시부터 광양시 문화예술회관에서 판소리 명인인 이난초(춘향가), 조성현(삼청가), 송순섭(적벽가), 남해성(수궁가)씨가 한자리에 모여 각각의 개성과 색깔이 담긴 흥겨운 우리 소리를 들려줬다.

명인들은 고수 이태백, 정항영씨의 북장단에 맞춰 판소리 다섯 마당에 속하는 춘향가, 삼청가, 적벽가, 수궁가의 가장 신명 나는 대목을 감칠맛 나게 열창하며, 능이와 색이 담긴 흥겨운 우리 소리를 들려줬다.

▲국악 미디어 아트쇼 '올림' = 오후 7시부터 시작된 국악 미디어 아트쇼 '올림'은 과거와 현대를 넘나드는 국악과 멀티미디어 영상의 환상적인 조화로 국악난장의 대미를 장식했다.

안숙선, 이준희 명창의 판소리와 민요 공연 경기도립 국악관현악단과 무용단의 협연무대, 퓨전 국악 그룹 '올라'의 연주가 이어져 관객들에게 국악의 정수를 선보였다. 가야금 명인 황병기 선생의 심금을 울리는 가야금 연주도 맑고 청명한 우리소리의 멋스러움을 널리 알렸다. /광양=김준희기자 chkim@

"전통문화 계승 기업이 나서겠다"

허남석 광양제철소장 본들의 사랑을 받으며 지역 대표 기업으로 성장해온 광양제철소가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에 앞장서야 한다는 생각에서 국악이라는 우리의 우수한 전통 문화를 접목시킨 '광양 국악 난장'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허소장은 이번 국악난장의 가장 큰 특징으로 '제 1회 대한민국 대학국악제'를

펼쳤다. 허소장은 "대학생들이 그동안 연마한 기예와 역량을 맘껏 발휘하고, 전통을 이어나가는 모습에서 감동받았다"며 "가족과 함께 참여한 많은 시민들이 국악난장을 통해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국악을 몸소 체험하고 즐기는 모습에 가슴 뿌듯했다"고 말했다. /광양=김준희기자 chkim@

대인동십일부동산
(주)223-1140, 9210, 911-892-2532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들 싸게 사십시오.
상가 전문소개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일가공인중개사
(주)234-8216, 911-609-0836
상가건물 매도
-국로 4로변 대지 231㎡(70평) 5층 20억
-중정로 대지 230㎡(70평) 5층 18억

상무랜드공인중개사
(주)383-5221, 911-609-5221
빌딩
-대지 600 건물 1,352 보 36억/월세 7,000만(지역 최고 상권) 용지 12억 대지 779㎡(대운교로변)
-대지 260/252,000 보 20억/월 4,000만 월세 18억 대지 765억

대지공인중개사
(주)339-4412, 911-802-2233
구합니다.
시내유수구할 임대주택 많은 상가건물구할.
권리지역 일사 구할.

금보부동산컨설팅
(주)261-8949, 911-602-2233
토지매매
-전남 광양읍 산동리 대지 1981㎡(매지 4000㎡)
-대지 1500㎡(지역 최고 상권) 용지 558㎡(용지 400㎡)
-대지 1000㎡(지역 최고 상권) 용지 300㎡(용지 200㎡)

A+ 에이플러스공인중개사
시정호환을 예측하는 전문가들의 자산컨설팅명가
광주-전남권 토지-건물 구할
Tel:(062)973-9174, 018-757-8800
수원지구 상업용지
건축용지
토지구할

한일지도판매(주)
(주)9529-1408, 018-2466-1408 (전통)527-6310, 011-9433-6310
2008최신 합본(광주나주순정읍합본)
지번도 책 판매중
안녕하십니까? 한일지도(주) 20주년을 맞이하여 합본책을 제작하여 판매하게 되었습니다.